

(...8페이지에 이어) 하는 것이다. 이를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한다.

압수 수색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평온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도주·증거 인멸을 하려 하거나 물리적 반항을 할 때다. 한 검사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강제로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짓눌렀다. 민주 국가 대한민국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 폭력이 벌어졌다.

정 부장이 이런 일까지 벌인 이유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정 부장은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이라고 한다. 이들의 표적은 정권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총장과 한 검사장이다. 그 수단이 채널 A 기사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채널 A 기사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이 아니라 여론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짜고 벌인 조작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할수록 기사와 한 검

사장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만 나온다. 급기야 검찰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청와대와 추미에 법무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상황을 뒤집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다시 이것이 정 부장에게 전달됐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모기를 보여주지 위한 것"이라며 "광풍(狂風)의 2020년 7월"이라고 했다. 실제 그 말대로 돼 가고 있다.

출몰하는 뱀



시골 장터에서 사라진 풍경 가운데 하나가 땅꾼들의 호객이다. "자~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으로 운을 댄 뒤 잡아온 뱀 이름을 줄줄이 읊고선 "애들은 가라, 보양강장제 한 번씩만 잡취 봐"라며 입담을 걸쭉하게 풀어냈다. 서울 청계천에서도 "비~암(뱀의 사투리) 사세요, 비~암" 외치는 땅꾼들이 많았다. 이들은 뱀이 정력제로 그만이라지만 의학적 근거는 없다.

1만원씩 팔릴 때가 있었다'(한국동물구조협회 김철훈 회장)고 한다.

▶환경부가 2004년 야생동물 포획, 유통 등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자 전국 땅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방련'(전국땅꾼연합회) 깃발을 들고 환경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뱀은 우리의 밭줄' 뱀 잡아 사람 피해 줄인 우리가 애국자라며 시위를 벌였다. 야생 뱀은 종류가 무엇이든 잡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결국 통과되면서 한때 1만명 수준이던 땅꾼들이 지금은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서울 도심, 농촌 비닐하우스, 골프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뱀 출몰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 어제 보도됐다. 최근 긴 장마와 땅꾼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뱀

뿐만 아니라 멧돼지·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보신 식품'이라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동물 보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꼽는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다. 바로 '밭기부전 치료제'의 등장이다. "비아그라가 시판되고 홍삼 같은 건강 보조 식품이 나오면서 야생동물이 정력제로 포획되는 일이 급감했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복원센터 최태영 실장)는 것이다.

▶바다표범은 수컷 한 마리가 짝짓기 철에 암컷 수십마리를 거느릴 정도로 정력의 대명사다. 그런데 1998년 비아그라가 출시된 이후 2년 만에 캐나다 바다표범 포획량이 최대 허용치인 25만마리에서 10만마리 이하로 줄었다는 조사가 있다. 하나에 70~100달러에 팔리던 바다표범 생식기는 비아그라가 나온 뒤 2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뱀 출현을 신고했더니 뱀을 잡아서 공원에 풀어줬다는 보도에 많은 사람이 어이없어했다. 뱀을 둘러싼 시비도 늘 것 같다.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대리 난투극'을 벌였다



한 검사와 정 검사, 한 사람은 검사장, 다른 사람은 부장 검사, 검찰의 핵심 간부들이다. 이들이 백주 대낮에, 중인 환시(衆人環視)에 난투극을 벌였다. 1950~60년대의 땀벌때 각목 난투극, 혹은 종교 단체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조폭을 동원했던 각목 난투극을 본지 참으로 반세기 만에 보는 네티어 맨 고위 공직자들의 난투극이다.

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아니 그보다는, 내 뒤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추미에 법무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검사나 수사관들은 체포 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대와 충돌이 있거나 몸에 가벼운 상처를 입어도 절대 내색을 하지 않는다. 조폭을 체포하러 갔다가 검사가 얻어맞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을 매우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는 자기가 먼저 '선빵'을 날려 놓고, 자기가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병상에 드러누웠다. 사회부 기사를 오래 한 지인이 말했다. "보통은 '선빵'이든 병원 치료든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그게 룰이다." 절반은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정진웅 부장검사의 행동에 일침을 놓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 치료도 참 쉽다. 하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님이 오셨는데, 막무가내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병원으로선 참 난감했을 것도 같다. 혈압 급상승을 호소했는데, 실소를 금지 못하게 한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오전11시쯤 경기도 용인의 범무연수원 분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연구위원으로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폰 유심카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 입회를 요청했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동의를 얻은 뒤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다. 한동훈 검사 측은 이렇게 말했다.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동훈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다." "정진웅 부장이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이에 반해 정진웅 부장 검사 측은 이렇게 말했다. "압수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이

▲ 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그린 것. /일러스트=이철원

있을 뿐이다."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등으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 있다."

갈게 말할 필요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앞뒤가 어찌 됐든 검찰 7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장면을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한 지휘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책임진 검찰 간부들이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며 국민들 앞에 권력의 생 얼굴을 보여드린 것이다. 검찰 신뢰도를 다시 한 번 땅에 떨어뜨린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을 그토록 강조해온 추미에 법무장관도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필요에 따라 거취의 책임을 지겠다고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옳다.

그리고 난투극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도 방송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런 영상을 수사기관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갈게는 사태의 고구마 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저들이 왜 저렇게 했겠는가. 그렇다. 등 뒤에 정권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채널A 기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서로 협잡한 검(檢)-언(言) 유착'인가. 아니면 단순히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인가. 아니면 '여권과 사기꾼과 어용 방송이 짜고 벌인 조작극'인가. 국민들은 답을 알고 있다.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뜻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검찰을 나가고 싶다."

대전 물난리 사망 뉴스 앞 파안대소

황운하와 친구들은 '엄지척'



대전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 김남국·최강욱·박주민·이재정 등 여당 7명 사진 논란

4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럼회원과 박주민 이재정^^"이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최 대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이재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최 대표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엄지를 들어보인 사진도 있었다.

나오고 있었다. 당시 보도 화면에는 물이 차오른 도로와 함께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원천교·만년교 홍수 경보"라는 자막도 나오고 있었다. 대전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후까지 쏟아진 비로 주택가 등이 침수되고 1명이 숨졌다.

30일 오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최 대표는 오후 7시 8분, 4장의 사진 중 '1명 심정지'라는 자막이 떠 있고 사진 속 인물들이 크게 웃고 있는 사진 1장(사진 위)을 골라 삭제했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의원들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최 대표는 30일 오후 2시

그러나 사진 속 TV 화면에는 대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특보가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